

2026. 4. 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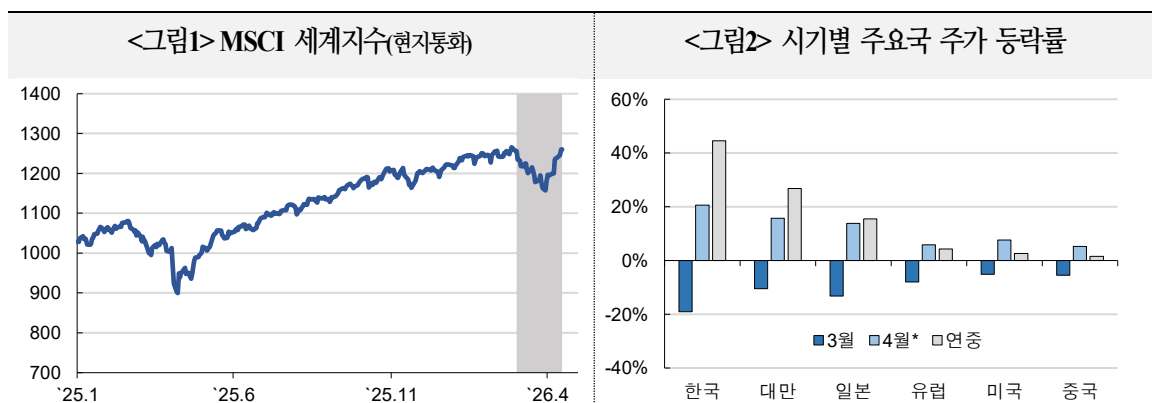
#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기업 실적 추정치 변화와 시사점

이은재 | 부전문위원 (3705-6226)

신술위 | 부전문위원 (3705-6246)

- [동향] 지난주 이후 세계주가가 6%대 강세를 보이면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낙폭을 회복한 가운데 최근 주요국 증시(미국, 유럽, 한국, 일본, 대만)의 이익 전망치 변화를 점검
- [특징]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로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급등했으며 반도체, 광통신망 등 AI 인프라 기업 중심으로 IT 업종 전망치 개선 추세가 뚜렷. 소비 관련 업종들은 구매력 둔화 우려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가 소폭 둔화
- [평가]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AI 부문이 글로벌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음. 향후 K자형 양극화 심화와 높아진 실적 눈높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

- [동향] 지난주 이후 세계주가가 6%대 강세를 보이면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낙폭을 회복한 가운데 최근 주요국 증시(미국, 유럽, 한국, 일본, 대만)의 이익 전망치 변화를 점검
  - 4.15일 기준 세계증시(MSCI 현지통화)는 전쟁 발발 직전 수준(1,260)을 0.7% 상회했으며 연초 이후로는 +4.5% 상승률을 기록
    - 선진국 증시(전쟁 발발 이후 +0.8%, 연중 +3.4%)는 미국(+1.3%, +1.8%)을 중심으로 전쟁 이전 주가 수준을 상회한 반면, 신흥국 증시(-0.6%, +13.3%)는 아직까지 소폭 하회
  - 최근 주요국 기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추세를 이어가며 주가 회복을 견인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, 관련 동향을 살펴볼 필요



자료: Bloomberg

주: 4.15일 현재, 자료: Bloomberg

<표1> 중동 전쟁 이후 주요 업종별 12개월 예상 EPS 등락률

	전체	에너지	산업재	임의 소비재	필수 소비재	금융	헬스케어	IT	부동산	소재	커뮤니케이션	유틸리티
미국	5%	35%	0%	1%	1%	1%	2%	11%	1%	7%	2%	0%
유럽	3%	35%	3%	-1%	2%	2%	1%	5%	-2%	3%	0%	1%
한국	27%	11%	10%	-1%	4%	2%	8%	37%	-	-1%	-2%	-11%
일본	3%	38%	4%	-6%	2%	5%	6%	10%	0%	1%	-3%	-1%
대만	5%	15%	2%	7%	-1%	4%	11%	5%	-	7%	0%	-

주: 미국은 S&P500 지수, 여타국은 MSCI 지수 기준, 자료: Bloomberg 컨센서스

□ [특징]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로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급등했으며 반도체, 광통신망 등 AI 인프라 기업 중심으로 IT 업종 전망치 개선 추세가 뚜렷. 소비 관련 업종들은 구매력 둔화 우려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가 소폭 둔화

○ 에너지 업종 이익 전망치 급등 : 유가가 당분간 전쟁 이전(\$60~70선)으로 회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美·日·유럽 에너지 기업 이익 전망치는 30% 이상 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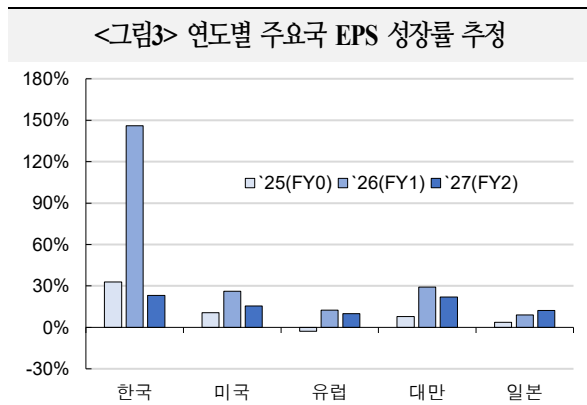
-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석유 E&P(탐사생산)\* 등 업스트림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일제히 상향 \* 순수 E&P 기업은 미국, 캐나다, 일본 중심으로 포진

• 미드스트림(운송저장) 중에서는 특히 LNG 개발·수출, 액화 및 저장 등을 담당하는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가스 가격 급등과 스프레드 확대로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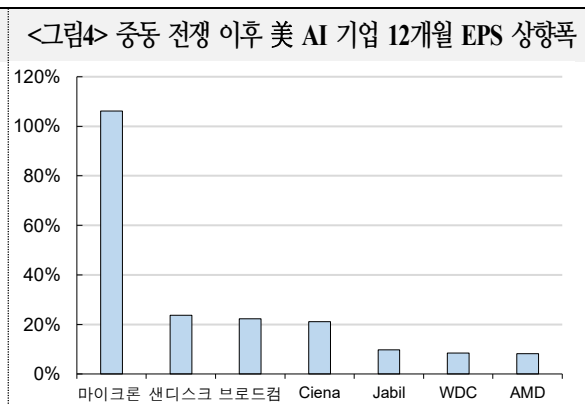
- 반면에, 정유 및 화학 등 다운스트림 기업(정제·판매)은 원가 부담 증가 영향으로 실적 상향폭이 제한적. 한국과 대만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주로 다운스트림에 해당

○ AI 인프라 기업 전망치 개선 지속 : 주요국 IT 업종 이익 전망은 반도체(메모리, ASIC 설계 등)와 광통신 네트워크, 냉각 시스템 등 AI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한 호조

- 미국과 한국 IT 업종 이익 전망치는 AI 밸류체인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 전쟁 이후로도 각각 11%, 37% 상승



자료: Bloomberg 컨센서스



자료: Bloomberg 컨센서스

- 미국은 마이크론(+106%)\*, 샌디스크(+24%), 브로드컴(+22%)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 더불어 통신 네트워크(Ciena, +21%), 서버랙 제조·첨단 냉각 시스템(Jabil, +10%) 등 AI 인프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개선 \* 3.18일 실적 발표. FY26 Q2 EPS \$12.2 vs 예상치 \$9
  - 다만, 전통 IT 인프라, B2C 모바일 통신, 범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수요 둔화 예상 등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
- 한국은 지난주 삼성전자가 메모리 판매 호조로 양호한 잠정 실적을 발표(26.1분기 영업이익 57.2조원 vs 예상치 42.5조원)함에 따라 시장 전반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
  - 대만의 경우, TSMC의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기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신공정 도입과 해외 확장 비용이 마진 개선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평가(Goldman Sachs)

○ **소비 둔화 우려도 일부 반영** : 임의소비재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등은 물가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둔화

- 임의소비재는 미국(+1%)의 실적 전망치가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, 일본(-6%)과 한국(-1%), 유럽(-1%)은 하향 조정되며 내수 둔화 우려가 확대
- 커뮤니케이션 업종도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소비자 지출 감소 여파에 따른 플랫폼·미디어·광고 분야의 수익 둔화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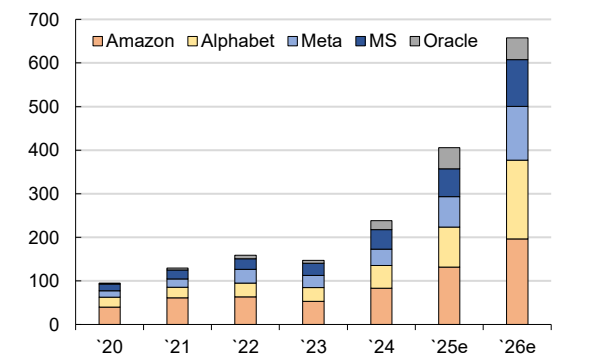
□ [평가]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AI 부문이 글로벌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음. 향후 K자형 양극화 심화와 높아진 실적 눈높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

- 미국 증시는 전쟁 발발 이후에도 모든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등,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견고한 상황

- AI 기업들이 최근까지 양호한 실적과 예상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여타 업종과의 실적 불균형이 커지는 'K자형 양극화'가 심화될 소지

- 하이퍼스케일러의 공격적인 CapEx\* 등에 힘입어 AI 부문은 실적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. 다만, '25.4분기 이익 성장률(M7 27.2% vs. 여타 기업 9.8%)에서 보듯 기업 간 실적 양극화가 확대(Goldman Sach AM)

<그림5>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추이(십억달러)



주: MS, Oracle은 각각 6월, 5월 결산 기준

자료: Bloomberg

- \* 올해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증가율 컨센서스는 연초 40% 미만이었으나, '25.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시된 기업 가이드스가 반영되며 최근 60%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
- 최근 거시적 관점(Top-down)에서는 인플레이션발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을 경고하는 기관들이 증가한 반면, 기업 실적 컨센서스(Bottom-up)는 낙관적인 시각이 유지되는 등 거시-미시 간 시각차가 존재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 
문의: 02-3705-6226 혹은 [ejlee@kcif.or.kr](mailto:ejlee@kcif.or.kr), 홈페이지: [www.kcif.or.kr](http://www.kcif.or.kr)